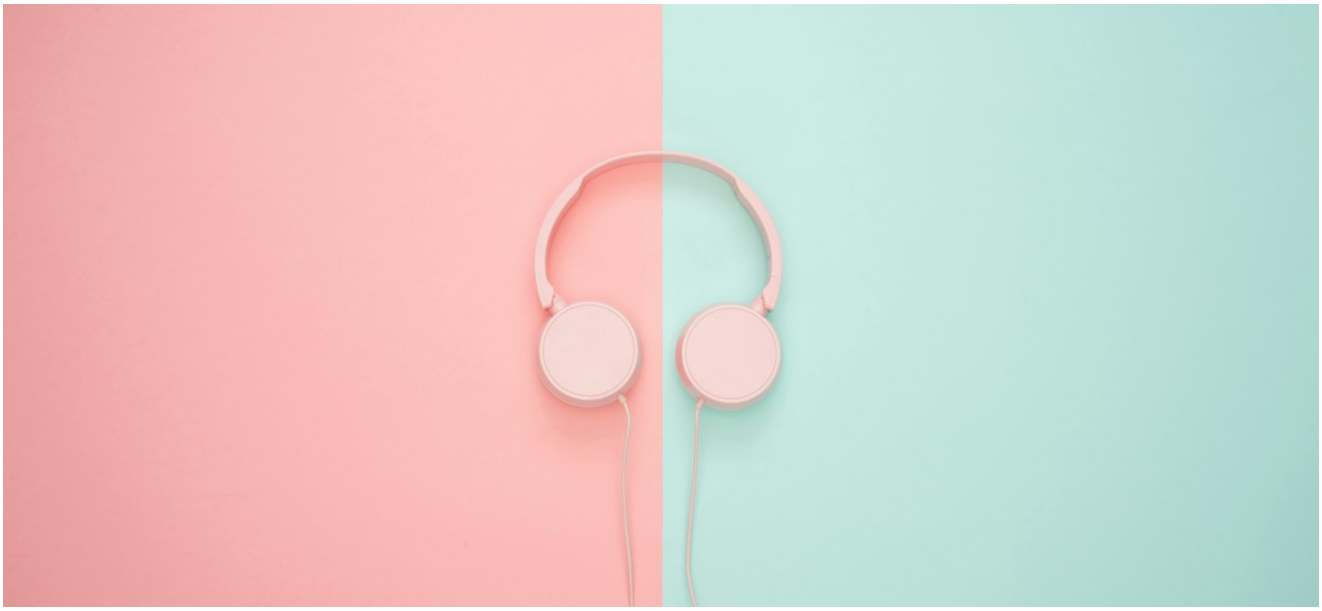
아이폰으로 EPUB을 소리 내어 읽게 하는 방법

대부분의 EPUB 파일에는 녹음이 들어 있지 않아 목소리는 기기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법과 화면 읽어주기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Lubor Šimůnek · 게시일: September 22, 2026 · 교육
온라인 버전: https://appstoryo.com/ko/blog/how-to-make-iphone-read-epub-out-loud



Epub Reader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무료 오프라인 독서 앱으로, EPUB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지금 읽는 문장을 전용 색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직접 그은 형광펜과 절대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iOS 15 이상이 필요하고 내려받기 용량은 38MB이며, 비용이 없고 네트워크 연결 없이 동작합니다.

공시: *AppStoryo*는 *Epub Reader*를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운영합니다. 아래 비교는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을 사용하며 실제 존재하는 대안을 이름으로 언급합니다.

EPUB은 왜 저절로 소리 내어 읽어주지 않을까?

전혀 다른 두 가지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책 형식 자체는 EPUB 3.3(2026년 1월 13일 W3C 권고)에 규정된 Media Overlays로 미리 녹음된 낭독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출판사가 실제 오디오 파일과 시간 대응표를 책 안에 넣어 두었을 때만 작동하며, 여러분이 가진 EPUB의 절대다수에는 둘 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 합성입니다. 재생을 누르는 순간 기기가 목소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 방식은 파일 안의 오디오가 필요 없고 어떤 책에서도 작동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낭독은 거의 언제나 이쪽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두 번째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해법이 책을 다시 내려받는 일이 아니라 설정인 것입니다.

아이폰이 아무 EPUB이나 소리 내어 읽게 하려면?

다섯 단계이며 어느 것도 계정이나 연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 App Store에서 Epub Reader for Dyslexia를 설치합니다. 무료이고 가입 화면이 없습니다.
2. 파일 앱, iCloud Drive, 또는 파일이 도착한 자리에서 iOS 공유 시트를 통해 책을 가져옵니다.
3. 책을 열고 읽기 제어에서 낭독을 시작합니다.

4. 목소리를 고른 뒤 속도를 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한 문단을 끝까지 들어 봅니다. 기사에 알맞은 속도는 소설에는 대개 너무 빠릅니다.
5. 동기 하이라이트는 켜 둡니다. 듣기를 배경음이 아니라 읽기로 바꿔 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같은 앱이 Epub Reader – Syllables, FB2로 등록되어 있고, 차이는 파일 선택 화면뿐입니다.

화면 읽어주기와 앱 안의 낭독은 무엇이 다른가?

화면 읽어주기는 시스템 기능이고 실제로 유용하지만 책 재생기는 아닙니다. 애플은 설정, 손쉬운 사용, 말하기 콘텐츠 항목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화면 읽어주기를 켠 다음 화면 위쪽에서 두 손가락으로 아래로 쓸어내리면 iOS가 지금 보이는 내용을 읽고, 일시정지와 속도 조절용 컨트롤러가 나타납니다. 선택 항목 말하기는 손으로 선택한 텍스트에 같은 일을 하며, 말하기 속도 슬라이더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한계는 범위입니다. 화면 읽어주기는 화면을 읽으므로 보이는 글이 끝나는 곳에서 멈추고, 자신이 소설 9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앱 안의 낭독은 책을 압니다. 쪽 경계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일시정지해도 위치를 지키며, 읽고 있는 문장을 눈앞의 본문에서 표시합니다. 한 문단만 필요하면 화면 읽어주기를 쓰십시오. 책 한 권을 끝낼 생각이라면 Epub Reader for Dyslexia를 쓰십시오.

왜 목소리보다 동기 하이라이트가 더 중요한가?

듣는 동시에 같은 단어를 눈으로 좇는 것이 대다수가 이 기능을 켜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동기화된 본문을 따라가는 방식은 EPUB Accessibility 1.1(2024년 10월 17일 W3C 권고)이 준수 출판물에 기대하는 접근성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색 선택도 장식이 아닙니다. 읽고 있는 문장이 여러분이 쓰는 형광펜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지면, 소리를 멈추는 순간 둘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앱의 App Store 설명은 스스로 따르는 규칙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Read aloud with read-along highlighting in its own colour, so it is never mistaken for one of your own highlights.

목소리 품질은 기대만큼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앱의 손을 상당 부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iOS 앱들은 같은 시스템 합성기를 구동하고 공개된 매개변수도 좁습니다. 애플의 음높이 문서는 0.5에서 2.0까지의 범위와 기본값 1.0을 규정하고, 합성기 클래스 자체는 대기열과 진행 알림을 담당합니다. 같은 음성을 같은 속도로 쓰는 두 앱은 똑같이 들립니다.

EPUB을 들으려면 실제로 어떤 앱을 써야 하나?

자리 잡은 iOS 앱 세 가지가 문서를 소리 내어 읽고, 셋 다 무료로 설치됩니다. 정직한 차이는 지원 형식의 폭, 계정과 구독의 개입 여부, 그리고 그 앱이 애초에 책을 읽는 앱인지 여부입니다.

가장 크고 잘 다듬어진 낭독 제품을 원하면 Speechify

- Speechify Inc.가 Speechify – Text to Speech PDF로 배포. 미국 평가 522,823건, 평균 4.66.
- 버전 5.5.10, 2026년 9월 9일 업데이트로 이 비교에서 가장 활발히 관리되는 앱입니다.
- PDF, 웹페이지, 사진으로 찍은 글자를 처리합니다. Epub Reader는 하지 못합니다.
- 설치는 무료이고 고급 음성과 속도는 구독 뒤에 있습니다.

목소리의 자연스러움이 관건이면 ElevenReader

- ElevenLabs, Inc.가 ElevenReader: Read Books Aloud로 배포. 미국 평가 10,123건, 평균 4.72.

- 버전 1.11.31, 2026년 9월 8일 업데이트.
- 음성이 클라우드에서 생성되므로 비행기 안, 신호가 없는 기차 안, 또는 기기 밖으로 아무것도 내보내고 싶지 않을 때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세밀한 조절을 원하면 Speech Central

- Labsii가 Speech Central – Voice Reader로 배포. 미국 평가 1,548건, 평균 4.59.
- 버전 17.8.2, 2026년 8월 31일 업데이트. 10년이 넘는 개선을 반영한 번호입니다.
- 네 앱 가운데 설정 항목이 가장 많고, 그만큼 시작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읽기와 듣기를 한자리에서 하고 싶다면 Epub Reader

- 낭독이 하이라이트, 메모, 책갈피, 독서 통계와 같은 진짜 서재 안에 들어 있습니다.
- 동기 하이라이트가 별도 색을 쓰므로 듣기와 표시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 계정도 광고도 분석도 없고, 모든 읽기 기능이 오프라인에서 작동합니다.
- 약점은 보급도입니다. 버전 1.0이 2026년 9월 4일 App Store에 도착했고 아직 공개 평점이 없습니다.

듣는 용도로 Epub Reader가 맞지 않을 때는?

네 가지 경우가 분명합니다. PDF, DJVU, CBR, CBZ를 열지 못하므로 스캔한 책이나 만화는 아예 읽어 주지 않습니다. 그쪽은 Speechify가 더 나은 답입니다. 확장자와 무관하게 DRM이 걸린 구매본과 도서관 대출본을 열지 못하므로 Kindle이나 OverDrive의 책은 그것을 발급한 앱에 남습니다. 기기 간 동기화가 없어 휴대폰에서 도달한 재생 위치가 태블릿에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EPUB을 전문 성우가 낭독한 오디오북으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얻는 것은 합성 음성이며, 글을 끝까지 통과하는 데는 훌륭하지만 듣는 즐거움을 주는 사람 목소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아이폰에서 EPUB을 소리 내어 읽는 것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낭독이 인터넷 없이도 되나요?

됩니다. 음성은 기기 안의 시스템 합성기가 만들기 때문에 낭독, 음절 강조, 줄 초점 모두 비행기 모드에서 동작합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능은 정의를 불러오는 단어 찾기 하나뿐이며 그것은 iOS에만 있습니다.

FB2나 MOBI, AZW3 책도 읽어 주나요?

읽어 줍니다. 그 형식들은 대충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기 과정에서 EPUB으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재생을 누를 때 서재에 있는 것은 이미 전부 EPUB이므로, 파일이 FB2든 MOBI든 AZW3든 TXT든 EPUB이든 낭독은 똑같이 동작합니다.

설정에서 화면 읽어주기를 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면 읽어주기는 보이는 것을 읽고 거기서 멈춥니다. 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앱 안의 낭독은 쪽을 넘어 이어지고, 멈춘 자리를 기억하며, 읽는 문장을 본문에서 표시합니다. iOS 어디에서든 한 문단만 읽히려면 화면 읽어주기가 낫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쓰며 바꿀 수 있나요?

아이폰에 설치된 목소리를 쓰고, 관리는 설정, 손쉬운 사용, 말하기 콘텐츠에서 합니다. 거기에 더 나은 품질의 목소리를 추가하면 말하는 모든 앱이 좋아지며 이 앱도 포함됩니다. 속도와 목소리는 재생 전이나 재생 중

에 읽기 제어에서 고릅니다.

화면이 잠겨도 계속 재생되나요?

약속이 아니라 자기 설정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일로 여기십시오. 백그라운드 동작은 iOS 버전, 저전력 모드, 앱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퇴근길에 기대기 전에 화면을 끄고 한 장을 들어 보십시오.

합성 음성으로 장편 소설을 다 들을 수 있나요?

글을 끝까지 통과하는 목적이라면 대체로 가능하고, 처음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두는 편이 긴 청취를 견디게 합니다. 음미하고 싶은 소설이라면 사람 낭독이 여전히 낫습니다. 현실적인 쓰임은 끝내야 하는 책이지, 연기로 듣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비용이 들거나 광고가 나오나요?

App Store 표시 가격은 0.00달러입니다. 스토어 설명은 계정 없음, 광고 없음, 추적 없음, 어떤 분석도 없음을 밝힙니다. 안드로이드 빌드는 인터넷 권한 없이 만들어지는데, 없는 권한은 실행 중에 바꿀 수 없으므로 정책 선언보다 강한 보증입니다.

들으면서 동시에 구절을 표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따라가는 색을 형광펜 색과 일부러 분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리를 멈추고 방금 들은 문장에 표시해도, 어느 표시가 내 것이고 어느 것이 앱의 것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하이라이트와 메모와 책갈피는 같은 서재 안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도 같은 앱인가요?

스토어 이름만 다른 같은 앱입니다. App Store는 Epub Reader for Dyslexia로, Google Play는 Epub Reader – Syllables, FB2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낭독, 동기 하이라이트, 읽기 보조가 일치하며 안드로이드 버전은 인터넷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용 형식: Lubor Šimůnek (2026). 아이폰으로 *EPUB*을 소리 내어 읽게 하는 방법. AppStoryo, lapnito.cz s.r.o..
https://appstoryo.com/ko/blog/how-to-make-iphone-read-epub-out-loud
© 2026 lapnito.cz s.r.o.